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 9배 ↑ 국내 철강사, 판가 제한 우려

과거와 같은 초저가 덤핑은 차단
안정적 공급시 수요분산 등 영향
“국내 철강사 판매량 감소 가능성”

최저수입가격(MIP·수출가격 인상약속) 제도 시행 이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이 다시 늘면서 국내 열연시장의 공급 여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초저가 덤핑은 차단됐지만, 향후 중국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실수요 업체의 구매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열연제품 수요가 일부 분산되고 국내 철강사의 판가 인상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8만4924톤으로, 지난 5월(9258톤)보다 약 9.2배 늘었다. 지난 1~5월 월 6000~1만2000톤에 머물던 수입량이 6월 8만톤대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위축됐던 수입이 지난달 23일 MIP 시행을 계기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으로 업계는 상당수가 시행 직후 선택된 기존 계약 물량으로 보고 있다.

MIP는 반덤핑 조사 대상 수출업체가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덤핑방지관세를 유예받는 제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열연 제품. /현대제철

도다. 이에 따라 초저가 덤핑은 어려워졌지만 기준가격 이상에서는 중국산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산 열연의 한국향 오퍼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은 톤당 560~570달러(CFR) 수준이다. 업계는 6월 수입 증가가 국내 수요업체와 중국 철강사 간 기존 계약 물량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내 열연 유통가는 톤당 97만원, 수입 열연은 92만원으로 지난 2월(국산 81만원·수입산 77만원)보다 모두 크게 올랐다. 잠정 반덤핑 조치 이후 수입재 영향력이 축소되고 원료가격 상승과 철강사

판가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열연은 사용처와 수요처가 분산된 범용재여서 자동차 강판이나 조선용 후판보다 유통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통가격은 시장의 대표 시세이자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실제 납품가격은 거래 물량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중국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업체의 구매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국내 열연제품 수요가 분산되고 국내 철강사의 판가 인상 여력도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열연 가격은 국내 철강사 실적의 핵심 변수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열연 가격이 톤당 1만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포스코는 6%, 현대제철은 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열연 판매량은 포스코 약 850만톤, 현대제철 약 270만톤이며 매출 비중은 각각 약 22%, 15%다. 열연 가격은 냉연과 아연도강판 등 후속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입된 물량만으로 국내 철강사의 판매량 감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산 공급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열연제품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칩플레이션’ AS 파장… 소비자 부담 커져

부품 가격 급등… 비용 인상 불가피

‘칩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부품·자재 가격 급등이 완제품을 넘어 사후관리(AS) 시장까지 번졌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수리용 자재비를 올리면서 소비자 수리비 인상도 현실화됐다. 다만 인상 폭은 휴대폰 기준 평균 1만원 안팎으로 자재비 인상이 수리비에 그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납품하는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6개월 만의 재인상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경험(MX)사업부 제품 자재비는 평균 5%, 생활가전(DA)사업부 제품은 평균 9% 올랐다. 스마트폰용 칩·패널부터 에어컨과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 컴프레서까지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TV를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경쟁사와 부품값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인상에서 빠졌다.

수리용 자재비는 통상 경쟁사 단가와 비교해 책정되는데, 앞서 경쟁사들이 먼저 값을 올리자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S비용에서 자재비 비중이 80~90%에 달해 수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가 부담할 인상은 품목당 수천원에서 1만원 안팎 수준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에 따르면 이번 자재비 인상으로 소비자 수리비는 휴대폰이 평균 1만1000원으로 가장 크고 에어컨 8000원, 냉장고는 3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자재비가 5%가량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전 등의 AS는 고장 부품만 부분 교체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리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시 전체 자재비가 아닌 교체 대상 부품 가격만 청구액에 반영되는 만큼 자재비 인상이 수리비에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남영 기자

LS일렉, AI DC 등 미래전력 솔루션 고도화

獨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개발 협력

LS일렉트릭이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전력망에 적용할 직류(DC) 전력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사의 전력 시스템 통합 역량과 전력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면서 고효율 DC 전력 인프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 LS일렉트릭 R&D 캠퍼스에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AI 데이터센터와 직류 전력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전

력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DC 전력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시스템(PCS)과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DC 전력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아울러 DC 전력 시스템의 전력·전압 변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안길영 LS일렉트릭 생산·R&BD 총괄은 “인피니언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DC 전력 인프라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전력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GS건설, 차세대 AI홈 개발 ‘맞손’

쌍큐 온-자이 단지 인프라 연계
초개인화 주거 경험 구현 목표

LG전자가 GS건설과 손잡고 차세대 인공지능(AI)홈 공동개발에 나선다. 집안 가전과 아파트 단지 설비를 AI로 한번에 제어하는 주거 서비스를 새 아파트에 적용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류재철 LG전자 사장과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AI홈 허브 ‘쌍큐 온(ThinQ ON)’을 중심으로 가전, 사물인터넷(IoT) 기기,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한 AI홈 솔루션을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의 단지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조명·난방·가스밸브 등 세대 내 기기 제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와 대화하며 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 실행하는 초개인화 주거 경험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당시 양사는 로봇 친화형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LG전자 CEO 류재철 사장(오른쪽)과 GS건설 허윤홍 대표(왼쪽)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전자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와 자율주행 기반 배송 로봇을 활용한 단지 내 서비스 구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AI홈 솔루션까지 더해 AI·로봇·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LG전자의 아파트 특화 AI홈 사업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쌍큐 온은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고 쌍큐 앱의 아파트 특화 서비스 ‘우리 단지 연결’ 적용 세대는 올해 1분기 기준 30만 세대를 넘어섰다.

해외에서는 북미 건설사 고객(빌더)을 겨냥해 주택 내 가전과 공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LG 쌍큐 프로(ThinQ Pro)’를 ‘KBIS 2026’에서 처음 선보이는 등 글로벌 건설 B2B 시장 공략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협약을 가전사와 건설사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미래 주거 시장

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LG전자가 고품질 빌트인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함께 공급하는 역량을 앞세워 건설사 협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LG전자의 AI홈 솔루션과 자이의 단지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을 통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표준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주거의 미래는 단순한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간이 하나의 거주 경험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열린다”며 “LG전자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양그룹, AI 포털 ‘SAMI 2.0’ 오픈

사내 업무 자동화 영역 확대

삼양그룹이 임직원 전용 인공지능(AI) 포털 ‘SAMI 2.0’을 열고 업무별 맞춤형 AI 구축과 사내 업무 자동화 확대에 나선다.

삼양그룹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SAMI 1.0’을 고도화한 ‘SAMI 2.0’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SAMI 2.0은 국내외 사업장 임직원이 업무 파일을 개인 AI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해 자신의

업무에 맞는 AI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든 자료는 외부가 아닌 사내 환경에서 활용돼 데이터 보안 우려도 줄었다.

삼양그룹은 앞으로 AI 결과물의 범위를 텍스트에서 이미지와 보고서 등으로 넓히고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업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황에 맞는 제안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원관희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카엔 ‘카젠라운지’ 마련

HD현대오일뱅크는 카라이프 플랫폼 카엔(Car&) 앱에 카젠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젠라운지는 고급휘발유 카젠과 초고급휘발유 ‘울트라카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 이력과 보너스포인트 조회, 추가 적립, 전용 이벤트 참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고급휘발유 주유 후 카엔 앱을 통해 카젠라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주유

금액에 따라 최대 리터당 4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며 5만원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는 전용 레이싱 게임 참여권이 지급된다. 게임 참가자는 결과에 따라 주유패스 프리미엄 1개월 체험권과 고급휘발유 주유 쿠폰, 보너스포인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고급휘발유를 주유한 뒤 카젠라운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고급휘발유 주유 쿠폰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